

# 홍 맥 폐 렴



**김 홍 집 대표**  
 (주)우리생명과학 · 수의학 박사  
 대한양돈협회  
 양돈방역대책위원회 위원

## 1.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홍맥폐렴군(*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혈청형 2 및 5)에 대한 항체 검사는 우리생명과학에서 플레이트 응집반응으로 실시하였으며, 응집항체가 8배를 기준으로 8배 이하는 항체 음성, 8배 이상은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 ※홍맥폐렴 예방접종 프로그램

- 생후 3~5주령 및 6~8주령에 각각 1회씩 2회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일선 양돈장에서는 대부분 생후 5주령과 8주령에 접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병시기에 따라 4주령과 7주령 또는 7주령과 10주령으로 조정하여 접종한다.

## 2. 농가별 발생 위험도 분석

### ■ 농가별 감염시기 분석

홍맥폐렴은 모든 일령에서 감수성이 있으나 주로 50~70일령의 육성기와 80~120일령의 육성비육돈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번 조사에서도 모체이행항체 소실시기 이후인 육성초기와 육성후기에 주로 집중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농가별 홍맥폐렴 최초 감염시기 분석결과

구 분	비발생 농가수	감염시기별 농가수 분포 (%)						합 계
		소 계	포유기	이유기	육성초기	육성후기	비육기	
2형	31 (51.7)	29 (48.3)	1 (1.7)	2 (3.3)	10 (16.7)	14 (23.3)	2 (3.3)	60 (100.0)
5형	24 (40.0)	36 (60.0)	1 (1.7)	3 (5.5)	13 (21.7)	13 (21.7)	4 (6.7)	60 (100.0)

## 3. 종합

- (1) 홍맥폐렴은 절반이상의 농가가 발생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로 육성기에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가는 모돈 16.7% 자돈 58.3%에 불과해 모돈 및 자돈에 대한 예방접종관리 강화 등 감염 방지조치가 요구된다.

(2) 모돈의 경우는 백신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체가 모두 양성이 농장이 많아 국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모돈에 대한 백신 접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분만사 입식시 모돈의 돈체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 자돈의 경우 농가의 편의에 따라 5주, 7~8주에 접종하는 농장이 많은데 이 질병이 육성 비육돈의 질병이라고 볼 때 접종 일령이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해 본다.

(4) 그러나 한가지 농장에 따라 일찍 나타나는 흉막폐렴이 있는데 이때에는 글레서씨병과 감별 진단을 해야 한다. 만일 흉막 폐렴이 이렇게 일찍 나타나는 경우는 백신 접종일령을 좀 빨리 놓도록 해야 한다.

(5) 그러나 국내에서 나타나는 흉막 폐렴은 약 80%가 육성비육기 질병이다. 또한 자연 감염 시 순환항체를 생산하는데 10일 후에 검출 되어지고 3~4주후에 항체 역가가 최고치에 이른다. 모체이행항체가 5~9주 동안 지속되고, 초유 항체역가가 떨어지는 3~5개월령에 다발한다. 성돈은 저항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이 적다. 보통 보균상태는 4개월부터 1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상재지화 된다. 만성농장에서는 발생시기가 불규칙하고, 모체이행항체의 수준이 균일하지 못하므로 3차시기까지 접종하는 방법을 택한다. **양돈**

## 토 · 막 · 상 · 식

### ●●● 돼지와 관련된 세시풍속

돼지와 관련된 세시풍속으로 정월 첫 번째 돼지날인 해일엔 전라도에선 바느질과 빗질을 하지 않았다. 이날 바느질을 하면 손가락에 병이 생기고 빗질을 하면 머리에 풍이 생긴다고 여겼다. 또 경상도에선 돼지날은 칼질과 빨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칼질은 돼지에게 해롭고, 특히 오전에 빨래를 하면 그해 식구들에게 해롭고 굶은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믿었다. 서울에서는 얼굴이나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왕겨나 콩깍지로 살갓을 문지르면 피부가 하얗게 고와진다고 믿었다.

<동국세시기>를 보면 돼지날과 쥐날에 환관들이 “쥐를 불살라라”, “돼지를 불살라라” 하면서 햇불을 들고 이리저리 휘젓고 다녔다고 한다. 또 곡식을 태워 해낭(돼지주머니)과 자낭(쥐주머니)에 넣고 신하에게 나누어주었는데, 이것은 풍년을 비는 풍속이었다.

중국 남조의 <잡오행서>에는 ‘10월 돼지날에 먹는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병이 없게 한다.’라고 기록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1월 15일 해시에 팥죽을 끓여 천구신 산신을 위해 마당에 상을 차려 제를 올리는데 죽이 응고될 때 동쪽을 향해 다시 절을 올리면, 일 년 동안 병이 없다고 믿어 왔다.

